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탄도로켓트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지난 수년간 고심어린 연구사업을 해 온 공화국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로켓트제작에 쓰이는 열보호재료를 연구개발하고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설계제작한 탄도탄전투부침두의 열안전성과 열보호피복체침식정도평가를 위한 시험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고 직접 현지에 나오시여 탄도로켓트 전투부침두의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을 지도하시였다.

이번 탄도로켓트 전투부침두의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은 탄도로켓트의 대기권재돌입시 공기력학적가열로 생기는 높은 압력과 열흐름환경속에서 침두의 침식깊이와 내면온도를 측정하여 개발된 열보호재료들의 열력학적구조안전성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시험결과는 모든 기술적지표들을 만족시켰다.

이번 시험을 통하여 탄도로켓트의 대기권재돌입시 조성되는 실지환경과 유사한 압력조건과 근 5배나 되는 열흐름속에서도 침두의 열력학적구조안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켓트 전투부의 재돌입민음성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게 되었다.



시험에 참가한 전체 국방과학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70일전투의 철야진군을 진두에서 령도하시는 것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위험천만한 시험현장에까지 나오시여 자기들과 뜨거운 정을 나누시고 숨결을 함께 하시며 대성공에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끝없는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시험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병진로선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우리의 미더운 국방과학자, 기술자, 군수로동계급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로켓트공업과 핵기술분야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사대국들이라고 자처하는 몇개 나라에서

만 보유하고있는 대기권재돌입기술을 자력자강의 힘으로 당당히 확보함으로써 탄도로켓트기술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으며 나라의 방위력과 군수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군력을 비상히 높일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과학기술적으로 론박할 여지없는 우리의 타격수단들의 첨단수준의 높이는 곧 우리 국력의 높이이고 우리 조국의 존엄의 높이라고 하시면서 군수공업부문에서는 국방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더욱 높여 당중앙의 군사전략전술사상을 실현할수 있는 우리 식의 다양한 군사적타격수단들과 주체탄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더 많이 개발생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핵공격능력의 민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핵탄두폭발시험과 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로켓트시험발사를 단행할것이라고 하시면서 해당부문에서는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맞받아나가는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원썩들의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을 단호히 징벌하시며 70일전투의 철야진군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것처럼 분망하신 속에서 현지에 나오시여 금수산태양궁전과 룡흥네거리사이에 일떠설 렬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현지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아 너를 빛내리라는 렬사의 맹세를 다지신 룡남산을 바라보시며 조선혁명의 렬명이 밝아오는 뜻깊은 곳에 일떠세우는 거리의 이름을 《려명거리》로 명명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렬명거리형성안과 조감도, 모형사관 등을 보시면서 렬명거리를 조선로동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과 사회주의조선의 위

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우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렬명거리를 날로 비약하는 주체적건축예술의 척도가 응축된 거리,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거리,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시킬 거리로 일떠세우자면 거리형성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룡흥네거리의 영생탑주변에 웅장화려한 고층건물들로 건축군을 형성하고 금수산태양궁전주변에는 정중정보장의 원칙에서 아담한 다층건물들을 배치하며 금릉2동굴로 뻗은 도로주변에 지대적특성과 조화되는 건물들을 일떠세우면 렬명거리형성이 특색있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 동원되였던 군인건설자들을 렬명거리건설에 또다시 파견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전당적, 전국가적, 전

사회적으로 렬명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하며 이 사업에서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렬명거리가 일떠서면 우리가 최근 해마다 거리들을 하나씩 건설한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기존건설공법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주체조선의 건설속도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만리마의 속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렬명거리건설은 단순한 거리형성이 아니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제재와 압력속에서도 더욱 억세게 뻗치고 일어나 세계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는 조선의 기상, 인민의 최고리상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조선의 모습, 우리가 일단 마음먹은것은 다 할수 있으며 우리 식대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살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정치체계기로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어찌보려고 어리석게 날뛰는 원썩들의 발악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있는것은 우리가 전진하고있으며 승리하고있다는데 대한 가장 명백한 증명이라고 하시면서 렬명거리건설착공의 첫삽을 박는것으로써 자력자강으로 부강조국을 건설해가는 선군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철퇴로 원썩들의 머리를 후려치며 더러운 몸뚱아리에 치명적타격을 안기는 비수를 찔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렬명거리건설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이라고 하시면서 렬명거리를 올해중에 반드시 일떠세움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밝고 창창한 래일을 내다보며 자기의 뚜렷한 앞길을 개척하는 우리의 힘, 세계가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는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의 전통을 다시금 과시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본사기자

지금 공화국은 자강의 힘으로 최첨단무장장비들을 련이어 공개하여 세계를 깜짝 놀래우고 있다.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과 세계적으로 사거리가 제일 길고 명중성이 대단히 정확한 반땅크유도무기의 개발, 정밀 유도체계를 갖춘 신형대구경방사포의 실전배비, 각종 탄도로켓들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 대륙간탄도로켓의 대기권재돌입기술의 완성...

하루밤 자고나면 또 하나의 희한한 사변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다음날에는 또다시 세상을 진감시키는 무적의 군사위용이 과시되는 등 조선의 힘의 과시에는 끝이 없을상실다. 그만큼 공화국의 자위적국방공업

최후승리의 함성이 들려온다

이 얼마나 위력하고 반미대결전을 진두지휘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단력과 결심이 얼마나 크고 단호하며 령군술이 세상이 다 알지 못하는 뛰어난것인가를 웅변해주는 감동깊은 화폭들이다.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신문과 방송으로 매일 매 시각 전해지는 그 기쁨의 사변적인 소식들을 들으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 최후승리의 그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마다 말하고있다. 반면에 공화국을 질

발악을 하는 적대세력들은 끝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공포의 비명을 련속 지르고있다.

공화국이 최근 세상에 공개한 이 위력한 타격수단들만 가지고서도 미국의 힘만 믿고 뒤일을 감당할 대책도 없이 《단호》하고 《용감》한척이라도 해보려고 무진 애를 쓰며 무모한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고 있는 박근혜역적패당은 두말할 것없고 제 나라 땅에 포탄 한 발 떨어졌것이 없다고 으시대며 이 지구상에서 온갖 전횡을 일삼는 미국땅도 처참한 불바다로 만들수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핵위협과 전횡의 시대는 끝장났다.

침략세력들에 의해 이 땅에서 또다시 민족이 바라지 않는 전쟁의 불길이 타래쳐오른다면 그것은 미국과 그에 빌붙어 비굴하게 살며 민족반역을 일삼는 매국역적들이 종말을 고하는 력사의 전쟁이 될것이다.

이것은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발악적인 책

음이라고 평한 지난 조선전쟁에서도 미국은 청소한 공화국을 이기지 못하고 종내는 패배의 횃기를 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때와 대비할수 없게 국력이 강화되고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켓, 전략잠수함 수증탄도탄기술까지 소유한 공화국을 적대세력들이 건드리려는 것은 자멸을 택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공화국의 초강경대응과 멸적의 의지, 무진막강한 군력의 과시에 질겁한 적대세력들은 한풀 기가 꺾여 이번 훈련은 《1년전부터 계획된 년례적인 방어훈련》이라느니, 《북의 4차 핵시험과 무관한 통상적훈련》이라느니, 《특별히 현 정세를 상정한 훈련이라고 보는것은 무리》이라느니 하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뒤걸음질치고있다.

이것은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발악적인 책

동이 오히려 저들의 숨통을 조이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절망감에서 나온 비명 소리이다. 또한 그것은 오늘의 조선반도와 세계의 정세를 주도하는것이 다름아닌 공화국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미국에 추종하는 박근혜패당은 공화국의 핵타격무장의 조준경안으로 자발로 게바라들어오는 자살적인 망동을 저지른것으로 하여 끝없는 악몽에 시달리다 못해 저 하늘에 대고 헛손질이라도 하듯 발악을 해대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립중에 처한자들의 마지막

세기를 이어오는 조미대결전에서 공화국이 완전한 주도권을 쥐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호되게 다발리고있는 것은 백두의 천출명장들을 모신데있으며 그 탁월한 령도밑에 자립적국방공업이 역격같이 다져진데 있다.

지금 수년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고 나라의 국방공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이

끄시었다. 현대전에 대처할수 있는 우리 식의 강위력한 타격수단인 신형대구경거리방사포개발을 직접 발기하시고 개발단계의 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을 화선에서 지도하시며 조종방사포의 비행조종안정성을 최신훈사과과학기술적요구에 완전히 도달시키고 탄의 위력을 높이는 문제에 온갖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신 그이의 세심한 지도가 있어 나라의 국방력은 나날이 더욱 강화되어왔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철옹성같이 수호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굳센 자주의지와 단호한 결심과 배짱을 그대로 닮은 선군조선은 적대세력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며 최후승리의 한길로 즐기차게 나아갈것이다.

이 행성에 일찌기 없었던 특대사변들을 안아오시며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빛내주시는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해 적대세력들도 《무인형》이라며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자주권과 생존권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는 공화국과 그것을 빼앗으려는 적대세력과의 마지막 최후대결전에서 승리는 명백히 공화국에 있다.

정의도 공화국에 있고 시간도 공화국의 편에 있다.

머지않아 패배의 횃기를 들고 제발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미국이 굽어나올 그날을 선군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벌써 눈앞에 그려보고있다. 현명한 정치군사분석가들이 그것을 확인하고있으며 더우기 백악관과 청와대에서 울려나오는 패자들의 꺼져가는 한숨 소리는 그날을 예언하고있다.

김춘원



천만군민은 수령결사옹위성전에 총궐기하여 천하무도한 적들의 도발망동을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릴것이다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

위대한 선군령장의 천하무비의 기상과 비범특출한 령도밑에 무섭게 도약하는 백두산핵강국의 위용에 기절초풍한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이 극악무도한 특대형도발행위에 매달리면서 정세를 최악의 폭발계선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것은 남조선전역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력대 최대규모의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 적들이 무엄하게도 우리의 전략적 중추지대에 대한 《내륙진공작전》을 골자로 하는 그 무슨 《2부 공격훈련》이라느니를 강행하면서 제 죽을줄 모르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것이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적들이 지금까지 벌려온 합동군사연습을 한계단 승화시켜 《유사시 북의 최고수뇌부와 핵, 미사일 등 북의 핵심시설을 정밀타격하는데 초점》을 맞춘 《내륙진공작전》 훈련을 벌린다고 뇌까리면서 우리의 핵보유능력을 막고 핵통제권을 장악하려면 《참수작전》과 같은 특수작전 이외의 다른 길은 없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대고있는것이다.

지난 시기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이 일본과 남조선은 물론 미국본토에서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붕괴》를 겨냥한 각종 특수훈련들을 극비밀리에 비공개로 벌려왔지만 이번 처럼 로골적으로 세상에 내놓고 공개해대며 지랄발광한적은 일찌기 없었다.

이것은 우리의 최고존엄에 도전해나선 침략자, 도발자들의 무모한 망동이 더이상 참을수 없는 극단적지경에 이르렀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우리의 삶과 운명의 태양을 가리워보려고 위협천한 마지막도박에 매달리고있는 적들의 천하무도한 망동은 우리의 위대하고 성스러운 최고존엄에 대한 전대미문의 가

장 악착한 특대형도발이며 우리에게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이다.

지금 우리의 최고존엄을 해치려드는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박멸하려는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와 멸적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있다.

우리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철천지원수 미제와 그 주구 박근혜역적패당의 전발밧을 극악한 도발망동으로 조성된 엄중한 현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립장을 천명한다.

생명보다 더 신성한 우리의 최고존엄에 도전해나선 특대형도발자들은 그가 누구이건 이 하늘아래 살아숨쉬수 없게 모조리 죽탕쳐 철저히 매장해버리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의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법에는 나라의 최고존엄이 위협당하는 경우 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담한 나라들과 대상들은 핵타격수단들을 포함한 모든 타격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선제소멸하게 규제되어있다.

자신들이 선택하고 규제한 국법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원수격멸의 전투명령을 기다리고있는 백두산혁명강군과 함께 흉악무도한 적들의 책동을 단매에 요정내기 위한 최후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미제침략자들과 박근혜역적패당은 소형화, 정밀화, 다종화된 핵탄을 만장약하고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노린 원수들의 아성부터 재가루로 만들려는 우리 군대의 섬멸적인 선제타격전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순간도 잊지말아야 한다.

적들이 감히 어리석게도 특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우리 군대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즉시적인 선제타격전에 돌입할것이며 우리 인민은 노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작

전개시에 발을 맞추어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원수들을 씨도 없이 쳐부시기 위한 전인민적인 소탕전에 과감히 떨쳐나서게 될것이다.

미제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감행한 저들의 비렬하고 루추한 특수작전들이 수령과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굳게 뭉친 우리 공화국에서도 통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것처럼 어리석은 자살적망동은 없을것이다.

우리의 수령결사옹위전은 전선과 후방이 따로없고 남녀로소모두가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참수작전》과 같은 무모한 특수작전에 가담한 특대형도발자들을 모조리 립지처참할 때까지 전인민적, 전국기적성전으로 전세계적범위에서 강력히 전개되게 될것이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천접만접으로 뭉친 수령결사옹위의 성세는 그 어떤 핵폭탄으로도, 그 무슨 특수작전으로도 절대로 건드릴수 없다.

태양이 없는 세상이 있을수 없듯이 우리 혁명의 수뇌부가 없는 조선, 조선이 없는 지구는 생각할수 없으며 태양이 영원하듯이 우리 혁명의 수뇌부는 영원하다.

우리 인민은 한손에는 마치고 낫을, 다른 한손에는 멸적의 총검을 비껴들고 총정의 70일전투의 대승리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최고존엄에 도전해나선 흉악한 원수들의 천하무도한 망동을 가차없이 짓밟개버릴것이다.

세상은 수령결사옹위전에 총궐기한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서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붕괴》를 노리고 분별없이 날뛰는 침략자, 도발자들이 얼마나 처참한 종말을 고하는가를 푹푹히 보게 될것이다.

주제 105(2016)년 3월 16일
평양

《내륙진공작전》은 서울불바다로 끝날것이다

이 땅에 분노의 용암이 치솟는다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벌려놓은 북침을 노린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무모해지며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폭발계선으로 몰아가고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미군의 핵항공모함과 이지스구축함을 비롯한 전쟁장비들을 편이어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무모하게도 공화국의 전략적중추지대에 대한 《내륙진공작전》을 빼때로 하는 그 무슨 《2부 공격훈련》이라는것을 강행하고있다.

이에 따라 평양을 목표로 진행되는 역대 최대규모의 남조선미군연합상륙작전인 《쌍룡》훈련 역시 해안상륙작전에 이어 《내륙진공작전》훈련으로 절정에 달하였다. 질은 화약내를 풍기며 분별없이 날뛰는 호전세력들의 망동은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하는 백두산 핵강국의 위용에 기절초풍한자들의 쓸데없는 객기에 불과하다.

문제는 호전세력들이 벌리는 《내륙진공작전》이 조선반도 유사시 공화국의 《수뇌부와 핵, 미사일 등 북의 핵심시설을 정밀타격하는데 초점》을 맞춘것이라는데 있다. 이를 두고 호전세력들은 공화국의 핵보유능력을 막고 핵통제권을 장악하려면 《참수작전》과 같은 특수작전 이외의 다른 길은 없다고 공공연히 떠

들어대고있다.

지난 시기 뒤끝방에서나 그것도 극비밀리에 벌리던 공화국의 최고준엄과 《체제붕괴》를 겨냥한 각종 특수훈련들을 이번에 세상에 내놓고 공개적으로 벌리는것은 태양에 손가락질을 해대는 천하무도한것으로 공화국에 대한 특대형의 도발행위이고 선전포고가 아닐수 없다.

눈 먼 강아지 호랑이앞에서 까불대는 식으로 날뛰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죽을때 죽더라도 공화국이 어떤 나라인지 푹푹히 알아야 한다.

천만군민이 령도자와 운명의 피줄을 잇고 사는것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있어본적이 없는 조선의 진모습이고 적대세력들은 백번 죽어도 이해할수 없는 공화국사회의 생리이다.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최고준엄이 빛발치는 평양은 마음의 심장이다. 이글거리는 쇠물폭포를 마련하는 로동자들과 풍요한 황금들판을 가꾸어가는 농장원들, 만산기를 날리며 황금해의 역사를 창조하는 어로공들과 심심산골에서 조국의 재부를 창조하는 사람들, 조국의 관문을 지켜서 인민군병사들과 민족의 위상을 만방에 떨치는 자랑스러운 체육인들을 비롯하여 이 땅 그 어디에서 살아든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속

엔 언제나 평양이 소중히 자리잡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벌리는 그 무슨 《내륙진공작전》의 목표는 바로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심장인 평양을 어찌보겠다는것이다.

조선민족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격분하고 치를 떨게 하는 호전세력들의 망동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한 사람같이 일떠선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난 2월 23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중대성명을 발표하여 극도로 무분별한 전쟁책동에 날뛰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을 가차없이 징벌해버릴것을 선언한 이후 단 이틀동안에 전국적으로 무려 150여만명에 달하는 일군들, 근로청년들과 대학, 고급중학교학생들이 인민군대입대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하였다. 이 나라의 천만군민이 생새, 방패가 되어 평양을 수호하겠다는 결사의 의지, 또 평양을 해치려는자가 누구이든 지구상 어디에 가있든 결단코 용서치 않으려는 멸적의 기상을 보여주는 단적실례이다.

미국이 핵무기를 휘두르며 세계에서 《힘》 자랑하던 때는 영원히 지나갔다. 불에는 불, 핵에는 핵으로 무자비하게 대담할 의지가 총만된 공화국이다. 위대한 령도자를 아버지로 모시고 온 사회가 하나의 대가정이 된 공

화국의 일심단결은 몇십, 몇백개의 원자탄이나 수소탄에도 비할바 없는 지구상 그 어떤 나라도 가지지 못한 최강의 힘이다.

공화국은 이미 선포한대로 내외호전세력들이 최고준엄을 어찌보려하고 《제도붕괴》를 꾀하는 특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즉시적인 선제타격으로 불마당 질해버릴것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하늘끝까지 치달고있는 공화국 천만군민의 무서운 보복열기를 푹바로 알아야 한다.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자는 이 하늘아래 그 어디에서도 살아숨쉴수 없게 된다.

곽창호

나의 사랑, 나의 평양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다. 나만이 아니라 이 노래는 온 나라 인민이 다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노래이다.

저녁시간에 TV앞에 마주앉아 화면에서 울려나오군 하는 이 노래를 들을 때면 한없이 소중한 평양이 마음에 안겨들고 이 아름다운 평양을 내 목속바쳐 지키리라 끝없이 마음속맹세를 다지군 한다.

두메산골 멀리에서 살아도 언제나 그리운 평양, 조국을 떠나 이국의 거리를 거닐다가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조국에 대한 생각, 그러면 저도 모르게 우러러 바라보게 되는 저 멀리의 평양하늘.

평양은 우리에게 곁결에도 잊을수 없는 마음의 고향이고 언제나 달려가는 삶의 기동이다.

그 소중한 평양을 짓밟으려고, 우리의 아름다운 평양의 밤을 빼앗으려고 적대세력들

이 미친듯이 달려들려고 하니 어찌 우리 인민의 피가 거꾸로 용솨솨치지 않겠는가. 평양시간에 심장의 초침을 맞추고 평양의 숨결에 자기의 발걸음을 따라세우는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은 참을수 없는 분노로 끓고있다.

지구상의 모든 불순적대세력이 다 모여들어 달려든다고 해도 군대와 인민이 천첩만첩의 성새를 이룬 혁명의 수뇌부가 있는 우리의 붉은 심장은 누구도 다치지 못한다.

이 세상을 통제로 다 준대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평양을 지켜 우리는 천만이 총폭탄이 필것이다. 평양은 영원히 조선의 성새로 솟아있고 이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는 영원히 이 나라의 하늘가에 울려갈것이다.

평양금성거리소학교 교장 김성희



도발자들을 정의의 핵탄으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에 접한 각계층의 반향

더 이상 지켜볼수 없다

적들이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그 무슨 《내륙진공작전》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고 하니 온몸의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

평양이 어떤 곳인데 감히 《진격》이요 뉘오 하며 광기를 부리는가.

우리의 손은 발사단추에 가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무엄하게도 우리의 전략적중추지대에 대한 《내륙진공작전》을 골자로 하는 그 무슨 《2부 공격훈련》을 벌리고 있다니 심장의 피가 끓어 참을수 없다.

공화국의 최고준엄에 도전하여 《북의 최고수뇌부와 핵, 미사일 등 북의 핵심시설을 정밀타격하겠다》고 기고만장하여 날뛰는 부나비들을 기다리는것은 정의의 핵선제타격, 주체탄, 통일탄의 불벼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수만 없다. 전쟁불몽치를 들고 달려드는 저 가증스러운 원수들을 정의의 핵탄으로 모조리 불바다에 처넣어야 한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 권금룡

조국통일성전의 최후결전의 이 시각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참수작전》과 같은 무모한 특수작전에 가담한 특대형도발자들을 모조리 통치차참할 타격명령을 기다리고있다. 생명보다 더 신성한 우리의 최고준엄에 도전해나선자들은 그가 누구이건 이 하늘아래 살아숨쉴수 없다.

중요로 피끓는 우리의 손은 지금 발사단추에 가있다.

로농적위군 대원 신철광

구상에 더는 전쟁부나비들이 날뛰지 못할것이다.

덤벼들면 단매에

감히 우리의 태양을 어찌보겠다고 날뛰는 적들이 가소롭기 그지없다.

에로부터 조선민족은 침략자들에게 자비를 몰랐다.

더우기 우리의 최고준엄을 건드리며 《내륙진공작전》이요, 《참수작전》이요 하면서 무분별하게 놀아대는 적들이 세상 누구도 맛보지 못한

전리마제강련합기소 노동자 김성혁

드센 징벌의 철추로 단호히 죽량쳐버리는것은 선군조선의 의지이다.

최강의 억제력을 들어친 우리의 포아구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어리석은자들에게 우리의 징벌이 어떤것인지 그 쓰디쓴 맛을 푹푹히 보여줄것이다.

로농적위군 대원 황진성

게는 병해충을 박멸하는것처럼 무자비하고 단호해야 한다.

지금은 비록 사회주의농촌진지를 튼튼히 다지지만 조국수호의 군복은 벗지 않았다. 그 무슨 《참수작전》이니 뉘니 하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어찌보겠다고 분별없이 날치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의 박근혜미사대 《정권》을 우리는 겨울내내 두엄무지속에서 잠을 자다 깨어나 푸른 들판을 노리는 병해충을 무자비하게 태워버리는것처럼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 협동농장 분조장 리명호

서울을 해방할것이다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감히 어지럽히겠다고? 죽고싶어 몸살이 난 놈들은 어디 다 덤벼들어봐라. 내 일흔이 넘었지만 내간들들을 얼마든지 요정낼수 있다. 조국해방전쟁때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네놈들을 일거에 쓸어버리고 오랜 세월 그 리운 혈육들과 헤어져 살지 않으면 안되었던 한을 한껏 풀려다.

서울을 해방할것이다.

전쟁로병 정훈상

정의의 핵은 자비를 모른다

지금 북침전쟁연습에 발광하고있는 남조선피회호전광들이 미국의 핵살인장비와 침략병력을 남조선에 편이어 끌어들이며 공격단체인 《2부 공격훈련》에 진입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수뇌부와 《제도전복》을 노린 추호도 용납될수 없는 극악무도한 도발행위로서 우리 천만군민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고있다.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미친

저 지역무리들이 죽지 못해 지랄이 났다. 어디다 대고 감히 불장난질인가.

울적만 해봐라. 이미 선제공격방식으로 전환되어 발사순간만을 기다리는 각종 첨단핵타격수단들이 무자비한 초정밀타격으로 도발자, 침략자들을 불바다속에 잠겨어놓을것이다.

우리가 들어친 정의의 핵은 자비를 모른다.

조선인민군 군관 리응남

나의 평양을 지켜

나의 고향은 평양이다. 그런데 내 삶이 움트고 꽃핀 요람, 나의 평양을 지금 미제와 박근혜당이 침범하려 하고있다.

평양에 태를 묻고 자란 우리, 평양을 마음에 소중히 새기며 자라난 우리 군인들의 드센 징벌맛을 보여줄래다.

조선인민군 하사관 현은철

향시적인 발사대기상대에 들어간 우리의 핵타격수단들이 발사순간만을 기다리고있다.

그런데도 미국과 남조선피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핵전쟁연습에 미쳐날뛰고있다.

부나비는 불에 타죽는 순간까지 날아드는것처럼 미국과 남조선피회들은 우리의 불세례에 종말을 고하기 전에는

미친 불장난을 그만두지 않을것이다.

오직 무자비하게 때려잡아야 한다.

우리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서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전쟁부나비들을 깡그리 불태워 없애버려야 한다.

만장약된 멸적의 자위적억제력이 총폭발하는 그때에는 지

우리 여성들의 힘으로

미국과 박근혜당이 감히 신성한 우리 평양을 어찌보겠다고 날뛰는 중요로 금할수 없다.

흔히들 여성은 연약하다고 한다.

하지만 공화국의 여성들은 강하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공화국의 여성들은 전선에서 용감히 싸웠으며 후방의 여성들은 포탄과 같은 군수물자를 머리에 이고 전선을 도왔다.

이제 또다시 결전의 시각이 온다면 우리 여성들은 1950년대의 안영애, 조순옥처럼, 남강마을여성들처럼 원수격멸의 성전에서 조선여성들의 역센 의지와 힘을 보여줄것이다.

행복한 우리의 가정, 그 무엇보다 바꿀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고 날뛰는 포악한 원수들을 우리 여성들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요정낼수 있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김성녀

병해충을 래워버리는것처럼

영농철이 다가오고있다. 영농과 관련하여 바쁜 일속에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일이 있다. 농작물 병해충을 없애기 위해 서 논둑이나 밭둑에 불을 놓는것이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없애는데는 살충제도 살충제이지만 불로 래워

버리는것 이상 없다.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먹어보겠다고 날뛰는것은 우리가 애써 키운 농작물을 노리는 병해충을 그대로 방불케 한다. 우리의 존엄과 리익을 해치려 하는 이런자들에

평양은 오르고 서울은 내린다



예로부터 《평양은 올라가고 서울은 내려간다.》고 하였다. 처음 생겨났을 때에는 지리적 의미로 쓰이던 이 말이 오늘에 와서는 평양이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끝없이 승승장구하는 반면에 서울은 시시각각 파멸의 나락으로 깊숙이 굴러

떨어지고있다는 뜻으로 세인의 입에 오르고있다. 평양은 오르고 서울은 내린다. 작가도, 기자도 아니지만 내가 본 북과 남의 판이한 위상에 대한 견해를 글에 담아 본다.

북의 핵타격수단들이 실전배비되어 항시적인 발사대기상태에 있다는것은 공개된 사실이다. 빈말을 모르는 북이다. 《이제 미국의 심장부에 수천수만의 목숨을 물어부릴 무서운 유일한 적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북조선》이라는 비명소리가 이미전에 미국내에서 울렸듯이 미국이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킨다면 북은 지구가 생겨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상상밖의 전쟁방식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적의 아성을 두들겨떨것이다.

그것이 악의 제국 미국에는 총과포로, 북에는 강성병영하는 통일조선만세소리가 천지를 진감할 환희로운 전승의 날로 이어지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대입대와 북대를 탄원해나선 사실을 통해서도 령도자만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조국수호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할 이 나라 군민의 드높은 정신세계를 잘 알수 있다.

상승 비약하는 평양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북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와 평화적위성발사를 겹고 북에 대한 《전례없이 가혹한 제재》와 군사적압박을 가하며 당장이라도 《북정권의 붕괴》를 가져올듯이 패재를 올리고있다.

적대세력들의 그 무슨 《고강도제재》나 군사적압박이 설사 다른 나라에는 통할지 몰라도 정의와 자주로 존엄높은 북에는 절대로 먹혀들지 않는다. 서방언론들이 《북은 행성에 우뚝 솟아올라 지구의 중심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나라》, 《자기의 존엄, 자기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모르며 목숨다해 지키는 말 그대로 존엄에 사는 나라》라고 찬양하고있는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그것을 본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금시라도 핵탄두를 탑재한 북의 미사일들이 저들의 머리위에 소낙비처럼 쏟아져 내리는것만 같아 죽음의 공포로 사시나무 떨듯 하고있다.

대입대와 북대를 탄원해나선 사실을 통해서도 령도자만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조국수호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할 이 나라 군민의 드높은 정신세계를 잘 알수 있다.

상에서 나는 장송곡이 울리는 박근혜 《정권》의 비참한 말로를 보고있다. 무엇보다 추악한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책동에 매달리는 박근혜 《정권》의 비극적종말이 코앞에 박두했다는것이 내가 보는 시각이고 견해이다.

그러나 내가 본 평양, 아니 세인이 보고있는 평양은 어떠한가. 지금 평양은 주저앉기는커녕 더 무섭게 솟구치고있다. 최악의 역경과 도전을 물리치며 평양은 자주와 존엄, 정의의 보루로 우뚝 솟아 날로 그 위력이 강화되고있다.

오늘 자주와 정의의 보루인 북의 존엄과 기상은 미국도 휘여잡는 최강의 군력에 떠받들려 만리대풍으로 치달고있다. 얼마전 북은 미국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켓과 함께 소형화, 경량화하여 탄도로켓에 장착할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한 핵탄두를 세상에 공개하였다.

북의 군대와 인민의 참된 삶이 어떤것이며 최고존엄을 지키고 반복을 꽃피우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있다. 그들은 한목숨 기꺼이 바쳐서라도 령도자를 결사옹위해갈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는 열혈의 인간들이다.

이남의 현 집권자인 박근혜는 미국 없이는 못사는 종미의 가련한 《대통령》이다. 미국을 하내비처럼 믿고 《제재》, 《참수작전》이니 하며 기세등등해하던 그가 지금은 미국이 북에 편이여 당하는 꼴을 보면서 등골이 오싹해하고 있다.

이남의 현 집권자인 박근혜는 미국 없이는 못사는 종미의 가련한 《대통령》이다. 미국을 하내비처럼 믿고 《제재》, 《참수작전》이니 하며 기세등등해하던 그가 지금은 미국이 북에 편이여 당하는 꼴을 보면서 등골이 오싹해하고 있다.

지정학적위기로 보면 조선이 대국들의 영향을 받기 쉽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을 숙명론처럼 받아들이야 했던것은 어디까지나 한세기전의 일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수난도 많던 한세기전 망국의 운명에 처한 불쌍한 조선을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애타게 호소도 하고 칼로 배를 갈랐어도 누구하나 동정의 눈길조차 보내지 않던 식민지약속국이 오늘엔 세계의 정치군사지형도를 좌우하는 새로운 강국으로 혜성같이 솟아올랐다.

전날 23일 미국과 남조선 호전파들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을 가차없이 징벌해버릴것을 호소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이 발표된후 이들동안에 전국도처에서 150여만명에 달하는 일군들과 근로청년들, 대학, 학생들이 인민군

전날 23일 미국과 남조선 호전파들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을 가차없이 징벌해버릴것을 호소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이 발표된후 이들동안에 전국도처에서 150여만명에 달하는 일군들과 근로청년들, 대학, 학생들이 인민군

전날 23일 미국과 남조선 호전파들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을 가차없이 징벌해버릴것을 호소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이 발표된후 이들동안에 전국도처에서 150여만명에 달하는 일군들과 근로청년들, 대학, 학생들이 인민군

전날 23일 미국과 남조선 호전파들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을 가차없이 징벌해버릴것을 호소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이 발표된후 이들동안에 전국도처에서 150여만명에 달하는 일군들과 근로청년들, 대학, 학생들이 인민군

실로 하늘땅같은 차이가 아닐수 없다. 오늘 령도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조선에서 울리는 사변적인 소리에 지구가 뒤흔들리고 조선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세계의 비상한 초점을 모으고있다. 조선문제를 떠나 그 어떤 국제정치문제에 대한 논의도 무의미한것으로 되고있는것이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북의 수소탄시험과 평화적위성발사에 멘집한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모두 떨쳐나 버적 떠들고있는것자체가 국제정치계에서 북이 차지하는 무게와 존재감을 과시하는 뚜렷한 반증이라 하겠다.

북의 수소탄시험과 평화적위성발사에 멘집한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모두 떨쳐나 버적 떠들고있는것자체가 국제정치계에서 북이 차지하는 무게와 존재감을 과시하는 뚜렷한 반증이라 하겠다.

북의 수소탄시험과 평화적위성발사에 멘집한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모두 떨쳐나 버적 떠들고있는것자체가 국제정치계에서 북이 차지하는 무게와 존재감을 과시하는 뚜렷한 반증이라 하겠다.

북의 수소탄시험과 평화적위성발사에 멘집한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모두 떨쳐나 버적 떠들고있는것자체가 국제정치계에서 북이 차지하는 무게와 존재감을 과시하는 뚜렷한 반증이라 하겠다.

《유일초대국》이라 자처하는 미국도 쨍쨍매는 나라, 미국의 협박과 공갈에 덩치 큰 나라들도 굽어드는 초대국중심의 국제정치구도에 강타를 안기고 강대국들을 상대로 하고 싶은 말을 다하고 제 할 일을 다하면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고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북밖에 또 있는가.

최근 북이 단행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와 반딧크유도무기시험사격,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 등을 통해 알수 있듯이 북은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미국땅덩어리를 마음먹은대로 두들겨 팼수 있는 강위력한 최첨단공격수단들을 다 가지고있다.

최근 북이 단행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와 반딧크유도무기시험사격,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 등을 통해 알수 있듯이 북은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미국땅덩어리를 마음먹은대로 두들겨 팼수 있는 강위력한 최첨단공격수단들을 다 가지고있다.

최근 북이 단행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와 반딧크유도무기시험사격,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 등을 통해 알수 있듯이 북은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미국땅덩어리를 마음먹은대로 두들겨 팼수 있는 강위력한 최첨단공격수단들을 다 가지고있다.

최근 북이 단행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와 반딧크유도무기시험사격,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 등을 통해 알수 있듯이 북은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미국땅덩어리를 마음먹은대로 두들겨 팼수 있는 강위력한 최첨단공격수단들을 다 가지고있다.

서울, 파멸의 나락으로

민족도 하나, 언어도 하나, 피줄도 하나이건만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둔 북과 남의 차이는 너무나 판이하다. 평양이 광명을 향하여 행성이 키를 솟구칠 때 서울은 총체적파멸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민족도 하나, 언어도 하나, 피줄도 하나이건만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둔 북과 남의 차이는 너무나 판이하다. 평양이 광명을 향하여 행성이 키를 솟구칠 때 서울은 총체적파멸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민족도 하나, 언어도 하나, 피줄도 하나이건만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둔 북과 남의 차이는 너무나 판이하다. 평양이 광명을 향하여 행성이 키를 솟구칠 때 서울은 총체적파멸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민족도 하나, 언어도 하나, 피줄도 하나이건만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둔 북과 남의 차이는 너무나 판이하다. 평양이 광명을 향하여 행성이 키를 솟구칠 때 서울은 총체적파멸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민족도 하나, 언어도 하나, 피줄도 하나이건만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둔 북과 남의 차이는 너무나 판이하다. 평양이 광명을 향하여 행성이 키를 솟구칠 때 서울은 총체적파멸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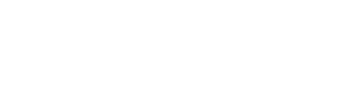
박근혜 《정부》가 입이 닳도록 떠들어온 《북붕괴》설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남붕괴》설로 현실화되고있는 것이다. 언론들이 《박근혜 《정부》는 경제는 개관, 외

박근혜 《정부》가 입이 닳도록 떠들어온 《북붕괴》설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남붕괴》설로 현실화되고있는 것이다. 언론들이 《박근혜 《정부》는 경제는 개관, 외

박근혜 《정부》가 입이 닳도록 떠들어온 《북붕괴》설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남붕괴》설로 현실화되고있는 것이다. 언론들이 《박근혜 《정부》는 경제는 개관, 외

박근혜 《정부》가 입이 닳도록 떠들어온 《북붕괴》설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남붕괴》설로 현실화되고있는 것이다. 언론들이 《박근혜 《정부》는 경제는 개관, 외

박근혜 《정부》가 입이 닳도록 떠들어온 《북붕괴》설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남붕괴》설로 현실화되고있는 것이다. 언론들이 《박근혜 《정부》는 경제는 개관, 외



온통 수라장이 되고있다. 더우기 오는 4월에 있게 될 《국회》의 원선거를 앞두고 권력층 내부에서의 갈등은 절정에 달하고있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국민통합》을 떠들어도 그것은 이남사회에서는 언젠가 도 실현될수 없는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단결은 승리요, 분열은 패배라고 했다.

대립과 갈등, 분쟁과 다름으로 썩고 병든 이남사회가 해결될수 없는 심각한 자체모순으로 말미암아 《세월》호처럼 침몰해가고있다.

여기에 반인민적악정으로 초래된 파국적인 경제위기와 최악의 민생고, 날로 늘어나는 실업자, 이민자, 자살자, 모든것을 포기한 《N포세대》 등 사회전반이 통채로 무너져내리고있다.

그렇듯 숨막히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어서 북에서 살다가 이남에 유괴되어간 김련희녀성도 북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하는 송환간담회에서 《북은 사람 사는 세상이지만 남은 불안하고 살기 힘든 세상》, 《어디서 태어나고 싶은가고 물으면 열백번 물어도 북에서 태어나고싶다》고 자기 심정을 터놓았으리라고 본다.

민심을 거역하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은 오직 파멸뿐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인민들에게서, 겨레에게서 사형선고를 받은지 오래다.

《못살겠다.》, 《갈아엎자.》는 분노의 함성이 도처에서 터져나오고 온 이남땅이 《정권》퇴진투쟁으로 들끓고 있다.

북의 불세례가 언제 들쭉뒤지게 될지, 민심의 분노가 언제 폭발할지 알수 없게 안팎으로 고립되고 배격받는 박근혜 《정권》의 파멸은 력사와 인민이 주는 응당한 징벌이다.

지금 박근혜 《정권》에는 검은 맹기가 드리워져있다. 죽음의 유령이 배회하는 이남사회는 이렇듯 비참하다.

평양은 오르고 서울은 내린다. 참으로 지당한 말이라 하겠다.

최후승리의 상상봉을 향해 질풍노도쳐가는 평양은 겨레의 희망과 구원의 등대, 궁지와 자부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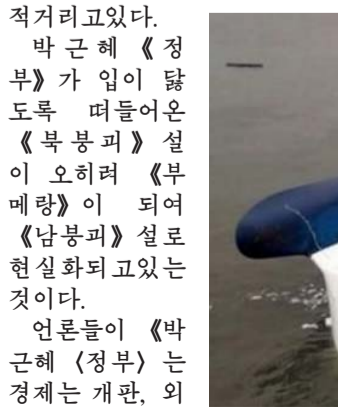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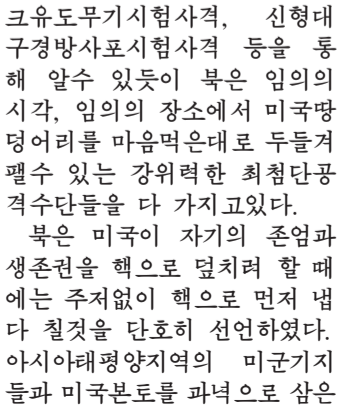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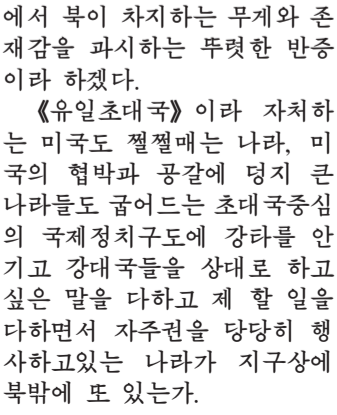
그러나 오욕과 수치의 퇴적지, 망조가 든 서울에는 앞날이 없다.

민족의 밝은 장래가 있는 곳으로 민심이 쏠리는것은 막을수 없는 추향이다. 뜻있는 사람들이 평양으로 향하는것이 분열된 조국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방향으로 되고있다.

《평양은 오르고 서울은 내린다.》는 말로 시작된 이 글은 이제 민족의 장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물음에 답을 내리는것으로 끝을 맺으려고 한다.

민족의 장래는 북에, 뛰어난 령도력과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체현하신 위대한 령수가 계시는 평양에 있다.

재가나다동포 흥영철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국과의 야합에 대규모 북침합동군사연습이 한창이다.

목적은 공화국의 《제도전복》, 《붕괴》이다. 그 전쟁소동은 내가 사는 중국의 동북지방에도 음울한 기운으로 뻗치고 있다.

이전에는 《제도전복》과 《북붕괴》를 운운하며 모략소동, 제재소동을 벌리던 뒤끝방의 주패군들이 이제는 제법 핵불장난으로 북의 《제도전복》, 《붕괴》를 실현해보겠다고 하니 기가 찰뿐이다.

《제도전복》? 까마귀 쟁 잡아먹겠다는 어리석은 오산이다.

인민대중중심의 북의 사회주의제도가 어떻게 마련되고 공고화되고 세계에 존엄떨치는지 약속강식, 황금만능의 사고로는 이해할수도 없고 상상할수도 없는자들의 객기에 불과하기때문이다.

북의 사회주의제도는 인민속에 기초를 박고 인민의 지지우에 억연성벽으로 일떠섰고 최강의 자위적억제력으로 만년대계를 담보하는 세계 유일무이의 지상락원, 금성왕지이다.

만설에 락락장송의 절개를 알수 있듯 수십년간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핵위협, 제재, 고립압살, 지어 자연의 심술궂은 재해속에서도 드물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청신함과 푸른 기상, 불변역척의 기개를 떨쳐온 북의 사회주의이고 그 제도이다.

지금도 세계는 피난민사태, 테로위기, 민족 및 종교분쟁의 회오리속에 숨가쁜 길을 뚫아가고있다.

미국이 북에 전가한 《악마》, 《테로위협국》, 《고립쇄멸된 국가》라는 랑설대로라면 세계를 휩쓰는 그 모든 악몽들이 먼저 북에서 일어났어야 했

고 조선반도주변으로 번져 있어야 했을것이다. 하지만 아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북이 위치한 조선반도에서는 세계최대 열점지역이면서도 전쟁의 불꽃은 일어나지 않았고 고난의 행군이 라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같지 않게 그 어떤 피난민사태도 생겨나지 않았다.

놀라운 일이다. 그 답은 북의 공고한 사회주의제도에서, 그 제도에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찾아야 할것이다.

얼마전 사업차로 라선 땅에 가본적이 있다.

지나해 뜻밖의 자연재해로 흑심하게 파괴되었다는 흔적은 전혀 없었다.

수차례 라선시를 찾았던 나도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였다.

라선지구 인민들을 만나 물으니 사람마다 눈물부러 흘리는것이였다.

최고령도자께서 나라일에 바쁘신 속에서도 하늘길, 바다길로 몸소 오시여 피해복구대책을 세워주신 이야기, 인민군대를 보내시여 원상복구가 아니라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여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인민의 무릉도원을 꾸려주신 이야기, 새집들이하는 인민들에게 수많은 생활필수품을 보내주신 이야기...

라선지구 인민들이 흘린 그 눈물은 위대한 아버지 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한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며 보답의 눈물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북은 령도자와 군대와 인민이 혈연의 정으로 이어져있고 온 사회가 하나의 대가정이 되어

회로애락을 같이하는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사회주의제도이다.

일본당국이 수차례 목격했듯이 풍랑을 만난 북의 어로공들의 시신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가 습기 한점 새어 들어가지 않게 보존되었다는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세계에 매일 전파되는 조선중앙TV로 볼수 있는것처럼 령도자의 주위에 울고웃으며 매달리고 그이와 떨어지고싶지 않아 차디찬 바다속에 뛰어들고 그이께서 타신 배스를 울면서 따르는 군대와 인민의 그 모습들은 과연 《계획된 연출》이나 《연기》로 볼수 있는가.

얼마전 로씨야의 따스통신이 보도했듯이 적어 집에 평범한 교육자들이 입사하고 로동자들이 살림을 편다는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누구든지, 또 어느때든지 북의 군대와 인민에게 물어보면 사회주의는 우리의 생명이고 생활이라고, 이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을것이라고 대답한다.

이런 사회, 이런 인민이 존재하는 제도를 《전복》시키다는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 재력을 총동원한다 해도 불가능하다.

《북붕괴》라는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미국과 남조선보수세력이 못해본것이 아니다.

1990년대 지구무대를 배회했던 《북붕괴론》, 21세기초에 등장한 《악의 축》, 《전략적인내》, 그에 편승한 남조선 보수집권세력의 《기다려

는 전략》과 《비상통치계획-부흥》, 《북붕괴》를 로골화한 현 보수집권세력의 《신티프로세스》... 그렇다고 북이 《붕괴》되었는가? 천만에다.

《붕괴》가 아니라 더욱 굳건해졌고 운택해졌으며 강성해졌다.

미국이 유엔을 강박, 회유하여 만들어낸 《고강도제재》라는것은 놓고보면 북의 민심혼란을 조성하여 《정권반대》, 《제도붕괴》에로 유도해보자는것이다.

그것은 북의 군대와 인민을 너무나 모르는 망상이다.

그들은 수십년 지속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제재에 너무나 《익숙》해졌고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를 잘 알고있다.

《익숙》해졌다는것은 꿈만해 한다는것도 있지만 제재에 대응할 자기 힘을 더 키운다는것이다.

자력갱생, 자강력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는 북에는 제재가 통하지 않는것이다.

오히려 그 《강력한 제재》때문에 북과 교류하던 주변나라들의 기업들만 한산해졌다.

군사적위협, 핵위협도 레이는 아니다. 력사적으로 미국이 북과 전쟁도 해보았고 《푸에블로》 호사건을 비롯한 무력대결도 해보았지만 한번도 이겨보지 못했다.

다른 나라앞에서는 큰 소리를 뽐명 치지만 북앞에만 서면 한없이 초라해지는 미국이다.

북은 이미 최강의 자위적억제력을 가진 핵보유국의 전열에 서있다. 핵과 핵의 대결은 종래로 없었다.

미국과 남조선이 최대 규모로 전쟁연습을 벌리는것은 북의 자위적억제력이 무서워 부리는 허장성세에 지나지 않는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북은 침략자들의 도발에는 선제공격, 선제타격전을 벌리겠다고 선언하였다.

또 얼마전에는 북의 최고령도자가 직접 경량화된 핵탄두를 보아주시는 장면을 세계에 공개하였다.

그 핵탄이 미국을 목표로 발사된다고 상상만 해보라.

북의 이러한 초강경 자세에 미국과 남조선은 제풀에 주저앉게 될것이고 북은 또다시 장흥을 부르게 될것이다.

북의 장흥은 미국이 꼬리를 내리고 평화협상마당에 끌려나오는 결과로 이어지리라는것은 의심할 여지없다.

부연하건대 미국과 남조선이 제재나 핵위협으로 북을 어쩔수 있으리라 고 생각하는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것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전쟁연습을 벌리다 북에 다 대고 한점 불꽃만 튀긴다면 후회가 뒤늦은 과국적 재난을 당하게 될것이다.

재중동포 박 미 자

어리석은 망상을 버려야 한다



령도자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공화국의 일심단결

① 로선은 발사단추에 손을 얹었다

김 영 일

하늘땅을 진감하는 치솟는 격분, 분노의 절규 어이 으스스린 주먹 추켜들어 증오의 노호성으로만 터치라 조선은 발사단추에 손을 얹었다

않는다 처참한 악의 소굴 그 자리에서 침략자들 뿌연 재가루로 무주고 혼이 되리

《키 리졸브》, 《독수리 16》 전쟁열에 날뛰는 갈가마귀떼들이 우글거리는 저 남녘의 하늘과 땅 바다 《참수작전》을 회뻬게 떠들어대는 광신자들이 우린 징벌을 말로 하지 않는다

관가리 최후결전의 시각만을 기다려 증오와 분노의 태업을 감아온 우리 피의 결산을 반드시 치를 의지 분분초초 총탄처럼 재우고 산 우리

아직은 세상이 다 모르고 세계의 그 누구도 가져본적이 없는 우리의 강력한 최첨단공격수단들 치면 맞고 때리면 죽어야 하는것 바로 이것이 침략자-너희들의 운명이다

우리의 신성한 령토, 령공, 령해를 향해 더러운 발을 들여놓으려 한다면 그 순간을 결단코 놓치지 않으리 《참수작전》을 뇌까리는 얼간이들아 이들에게 진짜 죽음의 맛을 톡톡히 보여주리

경거망동하지 말라 불속에 날아드는 나비신세라는 말은 이제는 옛말 조선은 침략자들을 앓아 기다리지

천하를 뒤흔드는 멸적의 보복이지 우리는 결코 말로 하지 않는다 가중스런 미제와 총결산을 치를 절호의 그 순간을 기다리고 기다리 오, 조선은 발사단추에 손을 얹었다

② 로선의 핵탄두

김 윤 식

순간순간 폭발의 시각만을 기다리는 증오와 복수의 덩어리인가 이 나라 군민의 멸적의 의지가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가 팡팡 다져진 오, 조선의 핵탄두! 지금 이 시각 이 순간조차

존엄높은 공화국의 《제도전복》 《평양진격》까지 감히 쳐쳐대며 핵전쟁의 불구름 미친듯이 몰아오는 침략자 미제여, 이 핵탄두를 보느냐 유엔의 거수기들과 《제재》늘음 벌리다 못해 《방어》와 《년례》의 가면마저 벗어내친 가중스런 침략자들의 먹줄을 향해 복수로 끓는 용암을 품고 작렬의 순간순간을 고대하는 조선의 핵탄두

순간도 잊지 말라 침략자들이 쌓이고쌓인 원한을 재워 피눈물 삼키며 허리띠 조이며 마련하고 다져온 이런 멸적의 주체란 통일탄들이 숲을 이루고있음을

③ 비참한 종말을 고하라!

김 송 립

은물의 피가 거꾸로 치솟는 이 분노 어찌 용납할수 있으랴 참고참아온 인내의 랑개를 끊어내 치며 격노가 서슬쳐 내뿜는 소리 미제, 침략자 미제를 들부셔버리리라 날이 갈수록 무모하게 벌어지는 대규모 북침합동군사연습 감히 《평양진격작전》을 뇌까

핵무기는 너희들의 독점물이 아니다 핵선제타격은 미국의것만이 아니라 천하제일명장 김정은원수! 그이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파멸의 섬광으로 재가루로 만들어 도발의 그 모든 본거지들을 어디에 있던 단숨에 날아가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쏟아져내려 흔적도 없이 강그리 태워버리리라 정의의 핵번개, 조선의 불벼락은 미제의 종국적멸망 가슴후련히 선언하리라

제국주의를 이기는 무진막강의 힘 자기 운명을 지키는 수호자의 강대한 보검 조선의 핵탄두 불려 가슴뿌듯한 이 부름은 조선의 강대성, 최후의 승리란 말이다

리며 《쌍룡》상륙훈련에 미쳐날뛰거니 우리의 태양이 계시는 평양 이 나라 인민의 심장파도 같고 목숨과도 같은 그 귀중한 이름을 향해 침략의 검은 화살표를 그은 미제 선언하노니 절대로 살려둘수 없노라 사랑다해 가꾸고 빛내여온 이 땅

아름다운 꿈과 리상의 설계도 펼치고 만복의 화원을 피워가는 이 땅 세계여, 똑똑히 보라 과연 그 누가 짓밟으려 하는가를 우리의 행복이 총탄에 찢기여지고 아이들의 웃음이 품고사는 희망이 불길에 타버리는 그런 참화 그런 비극을 들뜨우려 오늘도 한치한치 몰려오는 날강도 떼무리들

안된다, 절대로 안된다 이 땅의 조약돌 하나 풀잎 하나도 미제의 무한계도에 짓이겨질수 없나니 쏟아지는 불을 막아만 내지 않으리 맛받아 호되게 불마당질해버리리

움쩍하지 말라 단 한치도 선제타격의 조문은 이미 침략자 미제 너의 숨통 꺾찌르고 있다 도발에 광분하는 모든 침략기자들이 고스란히 너희들 문힐 무덤자리가 되리라

오, 백두산총대가 분노의 불길 재우고 달려드는 떼무리 마른 갈대처럼 태워버릴 징벌의 시각을 기다리고있거니 이 총대앞에 끊어번지는 이 분노 앞 침략자들은 고하라 비참한 종말을

세론

박근혜가 모르는 몇 가지...

한치밖에 안되는 말뚝구리 한마리가 굴러오는 수레바퀴를 막아보려고 뛰어들었다는 옛말이 있다. 사물에 대한 판별력도 없고 제 몸크기도 가능할줄 모르는 미련한 벌레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누구의 《변화》와 《붕괴》를 떠들다 못해 《참수작전》과 《평양진격작전》이라는 위협천만한 핵선제공격연습에 광분하고있는 박근혜역적패당의 가스로운 망동이 바로 그를 런상시킨다.

박근혜는 상대를 너무도 모르고 자기자신도 모르는것으로 하여 스스로 말뚝구리와 같은 비극을 불러오고있다.

예로부터 싸움에서 이기려면 상대를 알고 자기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작은 싸움, 큰 전쟁 할것없이 싸움마당에서는 언제나 적용되는 법칙적인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상대에 대해 아직까지도 모르고있다.

우선 북이 《제재》와 군사적공갈에 끄떡않는 행성의 유일한 나라라는것을 모르고있다.

박근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을 압박하면 곧 굴복할것》, 《제재가 북의 변화를 유도할것》이라고 했다. 북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장미빛 환상의 산물이다.

수소탄시험이 《전략적인 결단》이라는 북의 표현을 박근혜는 새겨보아야 한다. 국가와 민족의 존엄과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지금보다 몇십, 몇백배 더한 《제재》, 압박도 견뎌내고 이 길 자신감과 의지에 넘쳐있는 공화국이다.

박근혜는 북의 거듭되는 경고가 빈말이 아니라는것도 모르고 있다.

공화국은 이미 남쪽 《정권》에 대고 미국을 겨냥하고있는 핵타격무장의 조준경안에 제발로 들

어오는 자살적인 망동을 당장 걸 어치우고 리성적으로 분별있게 처신할데 대해 경고하였다.

이것이 한갓 업포이겠는가. 그것을 《말로 하는 위협》쯤으로 여기는데 박근혜의 비극이 있다.

북은 미국을 겨냥하여 핵을 만들었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지금 핵무기를 들고 달려드는 미국의 침략함선들과 본거지들에 무서운 보복철폐를 안기려고 발사단추에 손을 얹고있다. 일단 명령만 내리면 공화국의 정의의 핵탄들은 도발자들을 순간에 사정없이 짓이겨 버리게 될것이다. 미처 후회할새도 없게.

그런데 박근혜는 스스로 자멸을 재촉하며 북의 핵타격무장의 조준경안에 제발로 깊숙이 들어서고있는것이다.

박근혜는 상대도 모를뿐아니라 자기에 대해서도 모르고있다.

첫째는, 자기자신의 힘을 모르고있다.

식민지주주의 가련한 처지에 《응징》이니, 《보복》이니 기염을 토하지만 미국을 빼놓으면 남조선이라는게 과연 《힘》을 론할 수 있는가.

남조선의 무기는 모두 미국제 무기이다. 미국에 군사주권이 송두리채 넘어가있고 미국의 승인없이는 포탄 한발 북에 자유롭게 날릴 수도 없는 처지에 있다. 여기에 사회가 사분오열되어 반 《정부》 투쟁, 정파싸움이 그칠새 없어 망조가 든 남쪽사회이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런 사회를 위해 제 목숨을 바치겠다고 나설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박근혜는 미국과 《제일 가깝다.》고 하지만 그 미국에 대해서도 아직 다 모르고있다.

그는 미국의 바지가랭이만 붙잡고있으면 남쪽의 안전은 철저히 담보된다고 생각하고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니, 《혈맹》

이니 수없이 부르짖고있고 미국상전에 공개 보이려고 갖은 아양도 다 편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철두철미 자국의 침략적리익을 위해 움직이는 나라이다. 남조선같은것은 사실상 안중에도 없다. 미국이 《동맹》을 부르짖는것은 남조선을 그들의 손아귀에 영원히 비끼려매두려는 한갓 얼림수이다. 목전의 자기 리익을 위해서는 남을 서슴없이 해치고 핑개치는 나라, 그런 미국이기에 서울한복판에서 탄저균실험도 꺼리낌없이 했다.

지금 미국은 북의 핵타격권내에 있다. 미군부의 우두머리들도 《우리는 지금 핵탄두를 적재한 북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안에 있다는 현실적위험앞에 직면해있다.》고 아우성을치고있다.

이런 미국이, 제 몸도 건사하기 힘들게 된 미국이 만약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자국본토가 핵불바다에 휩싸이는것도 각오하고 남조선을 도와줄것 같은가. 오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미동맹의 위력한 힘》을 떠들면서 누구를 어찌보겠다고 흰목을 빼들고있는 박근혜야말로 얼마나 어리석고 가련한가.

상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면서 날치는것은 무식한 바보의 짓이고 제가 자기 목을 비트는 행위이다.

원래 잡자는 호랑이는 다치지 말라고 했다. 깨어나면 잡혀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잡자는 호랑이도 아니고 두눈을 부릅뜨고 무쇠같은 발톱을 쳐들고있는 성난 호랑이를 어찌보겠다고 달려들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어서 날 잡아먹어주소하는 어리석은 짓거리라 하지 않을수 없다.

김명성

제가 만든 화는 피할수 없다

최근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는 대규모 북침합동군사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이번 연습처럼 미국의 모든 3대전략핵타격수단들이 순차적으로 남조선지역에 전개되고 살인악마의 무리로 악명을 떨친 미북해공군의 특공대작전집단과 강습상륙집단까지 투입된것은 사상 전례가 없다.

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은 이번 연습이 《평양진격》 그리고 그 누구의 《제도전복 5015》의 최절정단계임을 꺼리낌없이 공언하고있다.

《평양진격》? 철딱서니도 없는 소리이다.

원썩중으로 달아오른 멸적의 총대를 추켜든 백두산군대가 서울을 먼저 해방할것이다.

로세야의 한 전문가도 《조선은 핵무기를 제외하고도 남조선에 파괴적

지난 16일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미군과 남조선피괴군이 연합도하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한목소리로 웨치는 소리.

《함께 갑시다!!!, We go together!!!》

도대체 어디로 함께 가자는것인가?

북을 치러 함께 가자는것이다.

삶이 싫어졌는가? 아니면 죽고싶어 환장을 했나?

아니, 《저승길도 벗어 있어야 좋다.》고 죽슴터에 혼자 가기가 싫어서였을것이다.

김강철

인 공격을 가할수 있다. 서울 수도권은 장거리포격 반경에 속해있다.》라고 이미 분석했다.

공화국은 이미 미국과 박근혜패당의 자멸적인 《평양진격》훈련에 선제적인 서울해방작전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립장을 천명하였다.

공화국의 백두산군군은 남조선작전지대안의 주요타격대상들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기지를 파력으로 삼고 모 든 핵타격수단들을 항시적인 발사대기상태에 두고있다.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명령만 내려지면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백두의 폭풍과 같이, 백두의 번개와 같이 단숨에 달려나가 이 세상 제일 너절한 미국과 박근혜패당을 빼다귀도 추리지 못하게 목사발을 만들어놓을 열의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삶의 귀중한 터전을 노리는자들을 가장 무자비하게 죽탕치는것이 바로 공화국의 기질이다.

박근혜패당은 그 누구의 《도발》을 외위될것이 아니라 불운이 드리운

저들의 비참한 운명부터 걱정해야 한다.

수치스러운 종말이 바로 미국과 박근혜패당에게 차례질 운명이다.

그가 누구든 공화국에 침략과 전쟁의 마수를 뻗치려고 작정한다면 그 순간부터 제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괴물스러운 자멸의 운명에 처해지게 될것이다.

공화국은 제 땅에서 최후의 종말을 맞는 순간까지 단 하루, 단 한시도 발편잠을 자지 못하게 섬멸의 포문을 열어두고 역적패당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지켜볼것이다.

이제 남은것은 박근혜패당과의 최후결산, 정의의 조국통일대전뿐이며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천금같은 기회는 공화국이 먼저 선택하게 될것이다.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박근혜패당의 수치스러운 잔명이 어떻게 비참한 종말을 고히하는가는 시간이 증명해줄것이다.

하늘이 주는 화는 피할수 있어도 제가 만든 화는 피할수 없다.

신기복



전쟁머슴군에 대한 조소

풍자가요 《전쟁 한번 합시다》를 두고

최근에 남조선에서는 현 집권자를 조소하는 풍자가요가 최대의 인기로 널리 유행되고있다. 지난 해는 제지있는 풍자가요 집권자와 보수당국을 예리하게 비난한 《새라령》이라는 노래가, 얼마전에는 《새라령》곡에 가사를 바꾼 《박라령》이 인터넷에 올라 큰 인기를 끌었다. 그 여운이 가라앉기 전에 이번에는 풍자가요 노래 《전쟁 한번 합시다》가 인터넷을 통해 유행가로 급속도로 퍼지고있다고 한다.

이 노래는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잊지도 않는 동족의 《위협》을 운운하며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있는 극악한 동족대결광신자, 사대매국노인 현 집권자를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을 조소하고있다.

이 노래에서 절마다 반복되는 후렴부분의 《신의 아들》이란 현 집권자를 비롯하여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 독재를 휘두르는 보수집권세력을 의미한다.

창작가는 동족대결에 이끌리 난 저들때문에 항상 위협이 도사리는 군대

에 자기는 물론 자식도 보내지 않으면서 《국민앞에 부끄럽다.》던 철면피 한자들에게 《기회 한번 주겠다.》며 해학적으로 야유하였다.

또한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미군범죄자나 친일매국노들에 대해서는 못 본척 하면서 동족과 는 한사코 해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는 반역무리들을 《반공투사》, 《똥이장군》으로 조소하고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면 핵무기를 끌어들이 미국놈만 좋아하고 《자위대》의 해외파병으로 제침의 기회를 노리는 일본놈들만 좋아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동안 고생했던 서민들은 쉬구요》라는 후렴내용은 진정한 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외세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전쟁소동을 반대하는 남조선인심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있다.

사대와 외세의존에 이끌리 나서 제 민족을 서슴없이 전쟁의 희생물로 내던지고 저들의 구차한 목숨연명에만 매여달리는 현 보수집권세력들의 비렬하고 추악한 몰골을 신랄한 웃음속에 폭로야유한 《전쟁 한번 합시다》는 동족대결로 일관된 현

남조선 《정부》의 진면모와 그에 대한 민심의 혐오감을 잘 보여준다.

노래에는 당대의 민심이 반영된다.

력대적으로 남조선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으로, 신랄한 야유와 조소의 주인공으로 되었던 리명박을 비롯한 남조선집권자들의 종말은 비참하였다.

마찬가지로 《새라령》, 《박라령》에 이어 《전쟁 한번 합시다》와 같은 풍자가요들로 민심의 조소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는 현 남조선집권자와 그에 추종하는 청와대하수인들의 운명도 다를바 없다.

노래의 마감부분에 특별히 강조한 《림전수칙》이 보여주듯이 남조선인민들은 전쟁의 불집을 일구어놓고 구차스러운 제 목숨연명에 부질없이 날뛰는 비겁한 현 집권세력에 대하여 자그마한 환상도 가지지 않고있다.

《전쟁 한번 합시다》 이는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성원들을 전쟁의 희생물로 내던지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선전포고이며 민심들의 버림을 받은 전쟁광신자들의 종말을 예고하는 서곡이다.

본사기자 황진옥

만평 청와대의 신음소리 들으며

요즘 북악산기슭에서 궁상맞을 신음소리가 현 울려나와 여론이 분분합니다. 북악산기슭이라면 청와대가 있는 곳인데 무슨 일이 있는것일까요?

한때는 신경과민으로 신경질 박박 피우면서 《처절한 대가》니, 《응징》이니 뉘니 하고 악청을 돌리던 청와대안방주인 박근혜였습니다.

감기에 들었는지? 혹시 지나친 신경과민에 의한 뇌혈전이라도...

박근혜가 요새 무슨 일로 궁궁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공화국은 그 누구도 실현시키지 못한 특이한 혼합장악구조로 설계제작된 위력이 세고 소형화된 핵탄두를 전격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북이 공개한 소형화된 핵탄두는 백악관은 물론 청와대안방주인에게 있어서도 악몽속의 저승사자였던것입니다. 세간에서는 북이 핵심군사기밀에 속하는 핵탄두와 전략로켓들을 공개했는데 그럼 그보다 더 위력한 비밀무기가 있다는 소리가 아닌가, 《베일속에 가리워진 북의 군사적위력》을 상상해볼 때 무서운 일이

아닐수 없다는 귀속말까지 들고있어 근해가 침상에 얹어누웠다고 합니다. 그뿐일가요?

《평양진격》이요, 《참수작전》이요 뉘요 하면서 미국 《아저씨》가 가져온 덩치 큰 항공포함파 각종 함선, 비행기들을 보며 얼마나 기뻐했던 박근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한순간에 요정별 핵탄두를 적재할수 있는 북의 탄도로켓들이 대지를 박차고 솟구쳐오르니 심리적타격이 이만저만 아닌 모양입니다. 요새 눈만 감으면 청와대를 향해 시벨렌 불꽃들이 현이 날아오는 장면, 무쇠발톱을 으르렁거리며 성난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북의 철마들이 눈에 어려와 말 잘 들던 수면제도 영 《불통》이라고 합니다.

또있습니까. 인천데 덮친다고 군에서는 《기강전선이 뺨뚱러》 아우성, 자살자급으로 란리랍니다.

한번 실례를 들어봅시다. 그것도 3월 며칠사이 있는 일들...

4일 《남강원도 회전교차로에서 린군부대 소속 사병이 혈중알콜농도 0.115%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복돼 2명 부상》

9일 《경기도 련천의 한 도로에서 한 소령 군용차 운전석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채 발견》

11일 《경기도 련천 지역에서 복무하는 사병 얼굴에 총탄을 발사하여 자살》

11일 《남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린군 야산에서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자살을 기도하던 사병 발견》

11일 《남강원도 강릉시 포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육군사병 투신자살》

공개된 자료만도 이만큼이니 숨긴 자료는 또 얼마나 많을가요.

근해가 참 신음소리를 낼만도 하겠습니까.

세상에 대고 《전쟁불사》와 《응징》을 떠들며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군에서는 왜들이러는것인지?

국도의 불안과 공포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위력을 가능할수 없는 공화국의 불벼락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얻어맞을지 모르니 심장이 어찌 좋아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 현이 무자비한 징벌과 복수를 다짐하는 공화국 천만군민의 함성까지 무시무시하게 들려와 모두가 미쳤나 봅니다.

국도로 쇠약해진 신경줄마져 끊어져 폭주로 시간을 보내고, 다가올 죽음앞에 광증이 살아나 미친듯이 차를 몰다나니 뺨그르-덜컹 하는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구요, 심한 공포증과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명처방이 바로 자살로 유행되고있는것이 군의 현 실태라고 합니다.

이런 오합지졸무리들을 가지고 공화국을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일심단결이 있고 최첨단타격수단들을 그쯘히 갖춘 북을 말입니다.

암 어렵도 없지요.

하긴 박근혜가 지금 신음소리 내고있는것만도 다행입니다.

이제 불벼락이 터지고 청와대가 벼락을 맞으면 그 신음소리마저도 들어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때는 근해도 지옥에서 편안히 잠들었으니.

아, 있습니다.

저승에 먼저 간 애비를 붙잡고 아이고 내가 북을 왜 건드렸는가, 허수아비같은 미국 《아저씨》를 믿고 큰소리 쳐봤다가 이런 꼴이 되었구나 하고 근해가 너두리를 해대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보고싶습니다.

김성욱

민심의 버림을 받은 산송장 박근혜가 갈 곳은 지옥뿐이다

조국통일연구원 백서

천하의 악녀, 민족의 특등재앙거리인 박근혜가 지금 비발치듯 쏟아지는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에 만신창이 되어 마지막숨을 몰아쉬고있다.

남조선을 《유신》독재의 란무장, 최악의 인간생지옥으로 만들고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판낸것도 모자라 칙락의 무리들을 끌어들이 동족을 멸살시킬 핵전쟁소동에 발광하고있으며 친미사대, 친일매국을 일삼으면서 민족의 존엄을 송두리채 팔아먹고 불구대천의 원수들과 입을 맞추며 돌아가는 역도년에 대한 온 겨레의 분노와

《온 국민을 다 잡아먹을 마귀년》

박근혜가 괴뢰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남조선에서는 청와대상공에 상스럽지 못한 기운이 떠돈다는 여론이 나돌았다. 《독재자의 딸》인데다가 보기만 해도 소름끼치는 상관대기가 닥쳐올 화난을 예고해주는것 같았기 때문이었을것이다.

그러한 우려와 불안이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였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혈한》이었다.

모략과 음모의 방법으로 권력을 가로챈 박근혜는 예비 박정희의 《명예회복》을 일생일대의 목표로 내세우고 《유신》독재를 되살리는데 피눈이 되어 달려붙었다.

자기 주변에 《유신》잔당들을 끌어모으고 반 《정부》세력과 정치적 반대파들을 가차없이 숙청해버리었다.

합법적인 정당이 하루아침에 《중북정당》으로 몰려 해산당하고 《국회》의원이 《내란음모죄》로 감옥에 끌려갔으며 전교조, 공무원로조, 《자주민보》 등 진보적인 단체들과 언론들이 비법화되고 예비의 친일행적, 파쇼독재를 서술한 역사교과서리용이 금지당하였다.

박근혜에게 엇서나간다고 하여 괴뢰검찰총장의 목이 하루아침에 달아나고 여당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쫓겨나가는가 하면 역도년의 개인적비밀을 알고있는 한 경찰이 백주에 차안에서 생죽음을 당하였다.

그러나하면 《테로방지법》이라는 또 하나의 악법을 조작하여 박정희의 정보정치를 부활시키고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대상들은 괴뢰정보원을 시켜 《테로혐의자》로 감시하고 가차없이 처형할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유신》파쇼독재를 되살리는 박근혜에 대한 민심의 분노로 온 남조선땅이 끓어번지고있다.

각계층 인민들은 박근혜를 《우아한 치마저고리속에 가리워진 《유신》망령》, 《유전적인 독재본능의 표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요물》로 저주하고있으며 《실망을 넘어 절망이다》, 《은 국민이 박근혜가 몰아온 《유신》의 재앙을 들뜨게 되었다》고 파쇼독재가 공공연히 판을 치는 암담한 현실을 개탄하고있다.

해외동포들은 《박정희의 18년 아직도 계속되느냐》, 《최악의 인권유린국》, 《불법 《정권》, 살인 《정권》인 박근혜 《정권》 퇴진》, 《박근혜는 세계 어디를 가든 무책임, 무능, 독재를 규탄하는 동포들의 합성을 피할수 없을것》이라고 하면서 반박근혜시위를 벌이고있다.

백같이 소름끼치는 독기를 풍기는 《맹혈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직 제 말만 옳다고 강박하는 《유아독존》, 《고집불통》은 박근혜에게 가장 많이 붙어다니는 오명이다. 아래것들에게 걸렸하면 짜증과 신경질을 내면서 《진도개정신》으로 달려들어 살점을 물어뜯을 때까지 놓지 말라느니, 《원수》니, 《단두대》니, 《원흉》이니 하는 독설들을 마구 내뱉는데 대해 사람들은 《섬찍하다》, 《공포의 상황》이라고 하

원성은 하늘에 닿고있다.

되는 지은데로 가고 민심을 거역한 자 천벌을 받는다고 하였다.

송장내를 풍기며 황천길을 재촉하고있는 년이지만 지옥에 가더라도 제가 저지른 온갖 악행과 만고대죄는 똑똑히 알고 가라는것이 격노한 민심의 요구이다.

조국통일연구원은 역대 괴뢰집권자들을 무색케 하는 살기어린 독재자, 민생의 참혹한 파괴자, 극악한 동족대결광인 박근혜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증오와 국제사회의 규탄여론을 그대로 담아 이 백서를 낸다.

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박근혜가 얼마나 독살스럽게 놀아대는지 청와대 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 줄개들이 그에게 말을 비치거나 쳐다보기조차 두려워한다. 《다른 생각 말고》라는 박근혜의 말 한마디에 모든것이 얼어붙고만다. 오죽하였으면 박근혜를 뒤에서 적극 밀어주던 《유신》잔당의 모임인 《7인회》놈들까지도 《무서운 녀자다》, 《독재기질에 기가 질린다》고 진저리를 치고있겠는가.

경제와 민생을 망쳐먹은 박근혜에 대한 민심의 저주는 또 어떠한가.

박근혜는 자기가 집권하면 《로인들의 기초생활비를 늘리겠다》, 《림시고용직을 완전고용직으로 바꾸겠다》,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 《어린이보육비를 대주겠다》, 《전기, 가스료를 낮추겠다》 등 무려 200여가지의 공약을 내놓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능청스럽게 재잘거려왔다.

그러나 집권하자 그 모든 공약들을 헌신짝처럼 제던지었다.

결과 오늘 남조선은 주민전체의 빈곤률이 세계 6위, 로인빈곤률은 세계 1위이고 림시고용로동자비율과 해고로동자비율, 최저임금로동자비율, 로동자의 평균수면시간, 해산률 등 모든 경제 및 생활지표에서 세계최악으로 굴러떨어졌다.

젊은 세대는 모든것을 포기하고 자살자는 세계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격노한 민심은 《약속과 신뢰를 저버린 파렴치의 극치》, 《오악성에 있어서 치마두른 현대판 변학도》, 《박근혜가 한 일은 젊은이들을 암담하게 만들고 국민을 참담하게 만든 것뿐》, 《저런 《대통령》 밑에 있는 국민이라니 창피해 못견디겠다》, 《거짓과 부정, 비리의 몸통 박근혜 퇴진하라》고 절규하고있다.

박근혜의 집권기간 《세월》호대참사, 메르스사태, 화재, 건물붕괴, 총동사고 등 각종 참사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무고한 생명들이 무리로 죽어가자 각계층 인민들은 역도년을 《피물》, 《야수》, 《은 국민을 다 잡아먹을 마귀년》으로 저주하고있다.

남조선을 이런 인간생지옥으로 만들어놓고도 박근혜는 오히려 제편에서 《국민이 패배주의에 빠졌다》느니, 《청년들은 이 땅이 텅텅 빌 정도로 중동에 진출하라》느니 하고 악담을 쉼쳐 민심의 더 큰 분노를 자아냈다.

항간에서는 박근혜를 빵을 달라는 백성들에게 《빵이 없으면 파자를 먹으라》고 왕정같은 소리를 쉼쳐던 프랑스 루이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안내프에 비유하여 《말이 안통하네뜨》로 비난조소하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동포들은 《어떻게 얼굴을 쳐들고 다니는지 그 뻔뻔함에 경악할 지경이다》, 《후안무치한 추태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역도년에 저주를 보내고있다. 인터넷에 《나라꼴 개판이다》, 《병신년》, 《환영, 비행기추락, 바뀐에(박근혜)죽사》 등의 글들이 실리는가 하면 청와대홈페지

에 《잡채같은 년》, 《염병할 년》, 《개쓰레기년》 등 울분에 찬 쌍욕들과 《애비의 죽음을 생각해라》, 《밤길 주의해라》 등의 경고글들이 폭발적으로 올라 홈페지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치마두른 강패, 극악한 동족대결광》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어 북남관계를 사상최악의 파괴에 몰아넣고 민족의 머리에 핵참화를 들씌우려고 미쳐날뛰는 박근혜에 대한 온 민족의 경악과 분노는 극도에 달하고있다.

박근혜는 집권하여 《신뢰프로세스》요, 《드레드넨선언》이요, 《신유라시아건설구상》이요 하면서 제년이 북남관계와 관련하여 무슨 새로운 것이나 내놓은듯이 수다를 떨었다.

하지만 남조선인민들과 온 민족은 알아듣지도 못할 말장난을 부려대는 박근혜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처음부터 규탄배격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남조선에서는 《그야말로 답답하기 이를데 없다》, 《상대를 무시하면서 대화하지는것은 강패세계에서도 통할수 없는 독선적인 관점》, 《방안에 잔뜩 상을 차려놓았지만 대문과 방문에 2중으로 자물쇠를 채워놓은 격》, 《독이 든 사과》라는 비난들이 쏟아져나왔다.

그리고 박근혜가 느닷없이 회담의 《격》문제를 내걸고 모처럼 마련된 북남당국대화를 파란시킴에 대해 예비 박정희의 본을 따 그따위 《격》문제를 내들었다고 하면서 《애비의 반공일념이 박근혜의 대북정책진조로 자리잡은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속통들은 박근혜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잃었다》, 《스스로 손발을 묶어놓은 꼴》, 《남북관계의 앞날이 걱정된다》고 격분을 터치었다.

박근혜가 우리의 성의있는 대화노력을 《화전량면전술》이니, 《위장평화공세》니 하고 모독하면서 《북에 끌려다니지 않았다》고 한사코 발버둥치는것을 보고는 년의 《대북정책》은 《신뢰프로세스》가 아니라 《대결프로세스》, 《불신프로세스》, 《실망프로세스》라고 규탄하였다.

역도년이 《통일대박》을 떠들며 체체대결본색을 공공연히 드러냈을 때에는 온 민족이 그 천박함과 어리석은 망상에 혀를 떨어다.

남조선언론들은 《대박》이라는 말은 장사치들이나 도박꾼들이 쓰는 저속한 표현으로서 기업가들도 차마 입에 올리기 꺼려하는데 박근혜는 통일이라는 그 신성한 이름에 《대박》을 가져다 붙여놓았다고 하면서 《천박함을 넘어 국제적망신이다》, 《창피하다》, 《과도하게 들뜬 감정이 위험을 몰아오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인터넷에는 《먹던 밥을 내뿔을 뻔 했다》, 《통탄스러울 지경》, 《《대통령》의 지적수준이 대박》,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대박》, 《천박스러운 용어》, 《대박, 면박, 반박 그러다 족박》이라고 야유조소하는 글들이 차고넘쳤다.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뻘살포를 목인조장하고 서울에 유엔 《북인권사무소》라는것까지 끌어들이며 대결에만 미쳐돌아치는 박근혜에 대해 온 민족은 꼭 무슨 재주를 칠 년 해온 년과 단죄하였다.

지난해 8월 박근혜년이 군사분계선에서 《지뢰폭발》사건을 일으키고 우리측 지역에 포까지 쏘아대며 《단호한 대응》이요, 《저절한 응징》이요 뭐요 하고 기업을 토하자 남조선사람들은 《싸움질만 하는 치마두른 강패》, 《안보무능 《대통령》》, 《국민을 왜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게 하는가》고 강력히 반발해나섰다.

박근혜년은 우리의 병진로선을 악

지난 괴뢰대통령선거때 박근혜에게 표를 주었던 사람들은 《자신이 저주스럽고 이 손가락을 자르고싶다》, 《가져간 내 표를 돌려달라》고 원성을 터치며 각계층의 투쟁에 합세해나서고있다.

말하게 험뜯으며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를 막아보려고 미친듯이 날뛰었다. 역도년의 망둥은 올해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를 계기로 극도에 달하였다.

년은 마흔하늘에서 날벼락이라도 떨어진것처럼 덴겁을 하며 미국상전의 유엔 《제재결의》조작에 앞장섰을뿐아니라 독자 《제재》를 떠들어대며 북남관계의 마지막숨통이고 리명박역도도 감히 손뼉 엄두를 내지 못했던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남조선 각계층은 이에 대해 《남북관계를 암흑시대로 돌려놓은 최악의 실책》, 《스스로 전쟁을 불러오는 자해적행위》, 《국민의 안전을 안중에 두지 않은 결정》, 《평화를 포기한것》이라고 단죄하였고 개성공업지구 남조선기업가들은 《박근혜가 입주기업들에 핵폭탄을 떨구었다》, 《중소기업들의 밥줄을 끊었다》, 《12만 4, 000여명의 생존을 버랑글로 내몰았다》, 《대북제제가 아니라 대남제제이다》고 울분을 토하였다.

언론들은 《효과가 없는 즉흥적인 화풀이대책》, 《전략적자충수》, 《자기 발등을 찌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법전문가들은 역도년을 탄핵시키고 법치집권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나서고있다.

해외동포언론들도 《개성공단폐쇄는 두고두고 후회할 일》, 《북이 아닌 남쪽에서 통곡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고 하면서 박근혜를 《뺨대가 없는 회충같은 존재》로 규탄하고있다.

《천하에 보기 드문 저능아 닭그네》

언론들은 박근혜를 두고 누구에게도 속을 주지 않고 남의 말을 새겨듣지 않는 《불통병》,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철면피병》, 롱상에 앉아 대감들에게 호통치는 《너왕》으로 착각하는 《호왕병》등 온갖 더러운 병에 걸린 미친년이라고 비난하고있다.

박근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청와대 비서실장도 모른다. 박근혜의 생각은 년이 궁겨가지고 다니는 수첩과 기록장에만 있고 박근혜의 유일한 상대는 년과 한이불속에서 당구는 애완용개뿐이다. 그로 하여 붙은 별명이 《얼음공주》, 《수첩공주》, 《메모공주》, 《애견공주》이고 청와대안방의 개가 알아보고 꼬리치는 사람만이 박근혜를 만날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그러나 일반백성들의 하소연은 박근혜의 귀에 들어갈리 만무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도 전혀 듣지 못하니 현대판 돈 끼호떼가 될수밖에 없는것이다.

기자회견에 나서서 질문을 받으면 《《한국》말 모르느냐?》고 매물차게 쏘아주기들 받먹듯 하여 기자들은 박근혜의 기자회견에는 아예 취재수첩도 없이 맨몸으로 참가하는것으로 항변한다고 한다.

박근혜의 저능아적인 사고수준은 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하고있다. 언어표현능력이 없어 늘 말을 짧게 하고 더듬거리는것은 물론 뜻도 모르고 왕정같은 말을 하거나 동문서답하는것은 보통사람들이 흉내내기조차 힘들 정도이다.

《전화위복》을 《전화위귀》라고 하지 않는가 하면 《이산화탄소》를 《산소가스》라고 하여 망신하고 사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란시킴것도 모자라 박근혜는 남조선에 미제의 방대한 칙락무력과 살인장비들을 마구 끌어들이고 북침핵전쟁도발을 위한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사상최대규모로 벌려놓았다.

남조선 각계층은 《박근혜는 국민안전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지만 국민은 무지한 박근혜때문에 잠을 잘수가 없다》, 《박근혜가 바로 무모한 도발과 파멸의 진원지이다》,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인 분단관리에 실패해 국민을 전쟁의 위기에 몰아넣고있다》고 들고일어나고있다.

그러면서 《박근혜의 비극적말로는 눈앞에 다가오고있다》, 《더이상 박근혜를 그냥 놔두면 민족이 멸망한다》, 《인류가 품은 희망의 파괴자 박근혜를 하루빨리 탄핵시켜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미친질주를 멈추어세우는 한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웨치고있다.

박근혜가 얼마나 대결에 환장하였으면 청와대의 애완용개가 5마리의 새끼를 낳자 인터넷에서 그 개들의 이름을 아예 괴뢰군과 미군의 《대북작전》대호인 《진도개 1》, 《진도개 2》, 《진도개 3》, 《데프콘》, 《워치콘》으로 짓자는 안까지 나왔겠는가.

지어는 남조선의 극우보수언론인까지도 인터넷에 《박근혜를 바라보는 눈에 콩깍지가 끼었던 사람들에게 알린다. 나는 지금 위험한 시국이라고 생각한다. 지긋지긋한 박근혜, 이젠 나도 버린다!》라는 글을 올렸다.

전문가들은 박근혜가 조선반도를 둘러싼 대국들의 세력싸움에서 살아남수 있는 유일한 길인 북남관계를 스스로 달아놓음으로써 《균형외교》는 고사하고 완전히 고립되는 처지에 빠졌다고 하면서 《교래싸움에 치운 새우신세》, 《거인들의 공놀이를 지켜보아야 하는 난쟁이신세》, 《닭뿔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되고 국제정치무대에서 우스운 꼴이 되었다》고 조소하고있다.

람들앞에 나서서 말할 때면 《음...》, 《이런...》, 《그...》, 《어...》하며 공공대는것이 박근혜이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한심한 《대통령》》, 《수첩이 없으면 어버버 어버버 하는 무식쟁이》라고 놀림을 당할수밖에 없는것이다.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소리만 하니 박근혜의 연설을 듣는 시청자들은 물론 기자들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다》, 《머리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저런 입을 쳐다보아야 하는 국민이 정말 불쌍하다》고 개탄하고있다.

정치인들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 박근혜와 무엇을 논할 자신이 없다》고 비꼬고있으며 언론들은 회의때마다 박근혜가 말하는것을 줄개들이 부지런히 적는 흉내를 내는데 대해 《다 써준것을 읽는데 도대체 받아쓰게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야유하고있다.

한때 박근혜의 대변인노릇을 하였던 전 《한나라당》의원도 《박근혜의 사고와 언어수준은 어린애와 같다. 정치적식신, 인문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 신문기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폭로하였다.

저능아적사고수준이 얼마나 팔불견이었던지 집권기간 무식과 무지가 늘 화제거리로 되었던 김영삼역도마져년을 《칠푼이》(칠삭동이)라고 비난하였고 박근혜를 비호해나서던 보수언론들까지 《무식한 녀자》라고 하면서 등을 돌려대고있다.

어느 정도로 둔자이고 틀레가리이면 남조선의 가정들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못하면 박근혜처럼 된다》고 말하겠는가 하는것이다.

(8면으로 계속)

접에 질린자의 미친 고향소리

박근혜의 구역질나는 악담질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세계의 놀라움과 경탄을 자아낸 공화국의 자위적군력강화에 기겁하여 《도발》이요, 《위협》이요 하며 미친년 제머리칼 쥐어뜯듯 대결광기를 부리던 박근혜가 얼마 전에는 《재외공관장만찬행사》와 《국무회의》라는데 나라나 《폭정》이니, 《단호한 대처》니 뭐니 하면서 동족을 향해 또다시 사나운 이빨을 드러냈다.

어느순간 동족을 핏뜯지 않고서는 못겠다는 사악한 청와대마녀의 체질적본성과 변태적인 대결광증이 또다시 발작한 것이다.

겉에 질린년 고향소리만 요란하다고 박근혜의 악담질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군사적위협에 대처한 공화국의 연속적인 초강경공세에 걸걸하여 채찍없이 날뛰는 미친년의 망발질, 모든것이 뜻

대로 되지 않아 지랄발광하는 산송장할미의 양탈질에 지나지 않는다.

알려진바와 같이 박근혜당은 공화국의 자위적군력강화에 당황한 나머지 불맛은 암개마냥 여기지기 싸돌아치면서 유엔의 반공화국 《제재》를 실현한다, 《독자제재》를 가한다 하며 퍼를 물고 날뛰었다. 이것은 외세와 작당하여 공화국에 《고강도제재》를 가하면 지금껏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추구하며 꿈꾸어오던 저들의 망상이 실현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실로 어리석은 타산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더우기 박근혜당은 이번 기회에 공화국을 완전히 붕괴시킬 어리석은 타산밑에 미국상전의 방대한 침략무력과 핵타격수단들을 끌어들이 《참수작전》이니, 《평양점령》이니 하며 무모한 북침전쟁도박에 서슴없이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비루먹은 강아지가 졸랑거리며 백호를 놀래울수는 없다.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대조선압살공세와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강위력한 핵타격수단들을 비롯한 군사적잠재력을 동원하여 악의 근원을 송두리채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인 총공세에 뒤편치었다.

해외침략무력이 투입되는 적지역의 항구들에 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목표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핵전투부를 폭발시키는 사격방법으로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 원수들을 무쇠주먹으로 뼈다귀도 추리지 못하게 깔아뭉개는지를 단호히 보여준 《조선인민군 땅크병정기대회-2016》, 이것은 《상륙훈련》이니, 《평양진격작전》이니 하며 제 죽을 날도 모르고 마구 헤덤비는 내외호전광들을 미처 정신차릴새 없이 연속적으로 답새기는 공화국

의 단호한 대응조치의 서막에 불과할 따름이다.

결국 미국상전을 믿고 민족이 쑥대에 오른것처럼 기고만장하여 동족을 해치려던 박근혜는 도리어 손발이 묶이여 불기땀기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공화국의 징벌의 의지가 비긴 불벼락을 앉아서 얻어맞아야 하는 가련한 처지에 빠져있다.

이것은 한치앞을 내다볼 능력도, 뒤일도 감당할 대안도 없이 무작정 부린 박근혜의 객기가 불러온 응당한 결과이다. 예사하면 두덜거리기도 하다고 박근혜가 구역질나는 악담질로 운명직전에 이른 자기의 가련한 처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수 있다고 타산한것 같은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것은 없을 것이다. 일질을 해낼수록 명줄을 조이는 비극적인 결과가 더 빨리 오게 된다는것을 박근혜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망조비끼 《새누리당》

남조선에서 《4.13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새누리당》이 와해분열되고 있다. 친박(친박근혜)이 친박(친박근혜)에게 거머쥐고있는 《새누리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친박(친박근혜)계, 친류(친류승민)계, 친류(친류승민)계 《새누리당》 후보 《공천》에서 거의 모조리 제거한것을 계기로 비박계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사태가 연이어 벌어지고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친박계와 친류계를 《공천》에서 거의 모두 제거한것은 그들이 리명박 《정권》 시절 《친박학살의 주역들》이고 친박근혜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법개정안》을 찬성하였기때문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친박계는 저들의 눈에 거슬리는자들을 이번에 《공천》을 구실로 가져왔이

제거해버린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천》에서 배제된 비박계 성원들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항의한다. 제소한 다 하며 분주함을 피우거나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당사에 몰려 《공천배제》를 철회하라고 소동을 피우고 있다. 그런가하면 《공천》에서 떨어진 많은 비박계성원들이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하고 있다.

《공천》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친박계와 비박계의 싸움은 《새누리당》의 지도부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비박계인 《새누리당》 대표가 비박계를 거의 모두 제거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토의하기 위한 최고위원회의를 거부하자 친박계인 최고위원들이 《공천의 중립성》을 저해하는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사파》를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국민공천제》 원칙을 위반했다며 《사파》를 거부했다.

한쪽에서는 비박계와

친박계의 양보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다른쪽에서는 무리탈당 등으로 하여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와해직전에 이르렀다.

남조선에서 정세분석자들은 박근혜의 사당으로 전락된 《새누리당》이 사분오열될것이라고 이미 전에 예견하였다. 현실적으로 이번 《공천》 과정에 모조리 제거되다싶이 한 비박계가 무리로 탈당함으로써 《새누리당》은 와해되고있는 것이다.

무릇 당이란 사상과 리념의 공통성으로 하여 뭉쳐진 집단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권력을 쫓아 모여든 시정배들의 집단이다. 그러니 비박계가 권력을 잡으면 친박계가 권력을 쥐면 비박계가 밀려나는 것이 《새누리당》의 추한 모습이다.

인민들이 바라는 정치는 하지 않고 계파간의 리익만을 추구하면서 사생결단하고있는 《새누리당》의 이번 《공천》 싸움을 지켜보면서 남조선민심은 저런 오물당은 정계에서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응철

오합지졸무리를 가지고 《응징》타령

최근 남조선군내에서 군부독재시기의 《군기세우기》와 무지막지한 강압식병영문화가 만연되어 자살자와 탈영자가 크게 늘어나고있어 내외의 비난과 조소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사병들을 선발하여 배치한다는 전방초소에서 이러한 사건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있는것은 염전, 염근분위기에 물젖어 기강이 헤이될대로 헤이된 남조선군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남조선강원도와 린근의 전방부대에서 만도 자살과 사고로 12명이나 죽었으며 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라고 한다.

몸에 기름을 부은채 불

을 달고,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하고, 제 몸에 총을 쏘고, 병영내 숙소나 위생실에서 군화끈으로 목살자고 탈영자가 크게 늘어나고있어 내외의 비난과 조소거리가 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만취되어 차를 몰다가 전복되어 차안에 갇던 주정뱅이들모두가 심한 부상을 입는가 하면 땅크부대 장교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차를 배수로에 처박고 심지어 비행사까지도 술을 먹었는지 리유없이 추락하여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각종 사고 또한 꼬리를 물고 있다.

씩을대로 썩어 무너져가는 남조선군의 한심한 실상을 보여주는 실례들

이다.

예로부터 군대는 규율이 없고 도덕기강이 헤이되면 전투력을 발휘할수 없다고 무너진다고 했다. 그런데 군대에 고상한 도덕과 규율이란것은 눈을 씻고 볼래야 볼수 없고 짝하면 폭행하고 달아나고 자살하며 사고치는 이런 썩은 집단을 두고 어찌 군대라 말할수 있겠는가. 이런 군대 아닌 군대가 싸움을 하면 또 얼마나 잘하겠는가.

이런 한갓 오합지졸의 무리를 가지고서도 박근혜는 입만 벌여지면 그 누구에 대한 《응징》과 《선제타격》을 떠들어대니 참으로 가스로운 정치만화가 아닐수 없다. 무너져가는 남조선군의 처참한 실태는 동족대결

과 북침전쟁책동에만 광분하면서 자기의 황친길의 말로써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현 집권자의 예비도 총에 맞아 비명횡사하였다. 박근혜는 외세의 《핵우산》이나 뒤집어쓰고 동족대결책동에 미쳐돌아가기 전에 언제 자기에겐 돌리질지 모를 남조선군사병들의 총부리부터 격정해야 할 것이다.

남조선군의 장교, 사병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민심을 등진 불통독재자 박근혜에게 추종하다가 공화국의 무자비한 심벌적타격에 개죽음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미리 자기의 살기명을 찾는것이 딱 현명할 것이다.

본사기자 서희

(7면에서 계속) 《그 애비에 그 딸, 남조선사람들이 불쌍하다》

원래 박근혜가 권력의 자리에 오를 때부터 세인의 눈길은 꺾이지 않았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독재에 맞서 굴함없이 싸워 《민주화의 투사》로 명성을 떨친 아버지의 딸들이 그뒤를 잇고있을 때 어떻게 되어 유독 남조선에서만은 세상에 악명을 떨쳤던 《유신》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 자리에 오를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박근혜가 당선되자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독재자의 딸》이라고 하면서 소식을 전하였는가 하면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의 많은 나라 언론들도 《암살로 막을 내린 독재자의 후예》, 《독재자의 딸이 청와대로 돌아왔다》 등으로 보도하였다.

박근혜가 유럽동맹국가들에 대한 행각에 나섰을 때에는 이 나라의 언론들이 《39년만에 박근혜공주 빠리방문》으로 보도하면서 결국 《대통령》으로가 아니라 《독재자의 딸》이라는 것을 부각시켜 넌을 망신시켰다.

스위스의 한 언론은 박근혜의 자기 나라 행각을 보도하면서 《박근혜는 남조선에서 불통으로 비판받고 있다》고 로컬적으로 조소하여 역도넌을 당황케 하였다.

《닭대가리》, 《닭그네》라는 별명을 붙이고 그에 대하여 풍자 조소하는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고 있다.

세계여론은 박근혜가 올라앉아마자 민주주의를 여지없이 말살하고 《유신》 독재를 고스란히 되살리는데 대해 《애비의 통치방식을 모방하는 여자》라고 비난하였다.

박근혜가 철도민영화라는 미명하에 철도노동자 8, 500여명을 해고해버리고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비법화한데 이어 민주로총사무실을 들부시자 여러 국제기구들과 국제로조련대는 《남조선의 민주주의를 구하라》는 국제적련대투쟁에 나섰다.

그 중심에는 빠리에 본부를 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서있었고 《프랑스로동총동맹》 등 국제로조단체들이 이에 합세하였다.

이들은 《박근혜(정부)는 로동기본권준수라는 력사의 시계를 반대방향으로 돌리고 있다》, 《이보다 더 우르스러운 정치집행위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하면서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심각한 위반사항을 긴급히 시정해줄것을 요구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나 남조선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들을 통해 남조선(정부)에 대한 감시의 수위를 높일수밖

에 없다》고 경고하였다.

박근혜의 통치방식이 날이 갈수록 박정희독재 《정권》시기를 닮아가고 특히 정치적적수들과 진보적인 단체, 언론들에 대한 탄압이 로골화되자 세계언론들은 《독재자의 딸이 로동자를 탄압한다》, 《력사교과서국정화는 《유신》 독재의 죄악을 지워버리려는 시도》, 《시대는 변했지만 박근혜는 독재를 부활시키고 있다》, 《박정희야만통치에 맞서 인권을 위해 싸운 용감한 현존들을 모욕하는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세월》호대참사를 빚어내 수백명의 아이들을 차디찬 바다속에 통채로 수장한 박근혜에 대해 외신들은 인터넷에 《살아있는 시신들의 날》이라는 제목의 기록편집물을 올리고 《남조선당국은 구조입무를 민간구조회사에 떠넘겼다》, 《유가족들이 진실을 요구하자 무력을 동원해 침묵시켰다》고 하면서 박근혜의 무능과 맹정함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국제대사령은 박근혜가 경찰들을 내몰아 당국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자 《세월》호참사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모독이고 반인륜적행위이다》, 《평화적집회와 시위에 대한 진압은 절대로 정당화될수 없다》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일본의 언론들은 박근혜가 《세월》호침몰당시 자기의 7시간동안의 행처에 대하여 고발한 일본기자를

사법처리하자 일제히 《악담을 퍼뜨리는 아줌마》, 《어린아이》, 《바보》, 《성인남자의 사랑이 필요한 여자》 등으로 조롱하고 박근혜가 아베라는 《런인》에게 양탈을 부리는 풍자만화까지 내뿜었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몽드》, 영국의 《에코노미스트》를 비롯한 주요언론들은 《남조선의 언론자유침해》, 《일본기자 기소억압》, 《수난당하는 남조선언론의 자유》, 《언론탄압으로 독재부활》, 《민주주의 위협》 등의 비난기사를 매일과 같이 쏟아냈다.

오스트리아의 한 신문은 《남조선은 《검열공화국》,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고 보도하였는가 하면 《서울의신기자클럽》, 《국경없는기자회》, 《국제기자련맹》 등은 《언론을 탄압했던 독재자의 딸이 또 언론을 탄압한다》고 하면서 박근혜를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적지 않은 나라 언론들이 박근혜의 독재정치, 언론탄압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남조선에 있던 지부를 옮겨가고 있다.

프랑스신문 《피가로》는 서울특파원을 상해로 이동시켰고 도이칠란트의 대외무역전문잡지 《GTAI》, 미국신문 《워싱턴포스트》와 미국경제전문방송 CNBC도 서울에 두고있던 지국을 다른 나라로 옮겼다. 남조선언론들은 박근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들을 집중보도하면서

옛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도적이 한밤중에 남의 집 물건을 훔치려고 대문을 살그머니 열었다. 순간 고요한 정적을 깨치며 때문에 매달린 방울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났다. 너무 급한 나머지 도적은 귀를 막고 방울을 떼어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치니 도적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어느새 집주인은 방울소리를 듣고 달려나와 도적을 잡았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로부터 《귀막고 방울도적질하기》(《엄이도령》)라는 성구가 생겨나게 되었다. 어리석은 노릇으로 남을 속이려 함을 이르는 말이

최근 남조선호전세력의 놀음이 꼭 《엄이도령》격이다.

지난 14일 괴뢰국방부는 대변인이라는것을 내세워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립장에 변화가 없다》고 억지소리를 높였다. 여직

귀막고 방울도적질

것 공화국의 핵탄두소형화에 대하여 완고하게 부인해오던 미국의 전문가들까지도 《북이 핵무기를 소형화한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는데 괴뢰군부당국자들만이 그것을 부인하려고 무언을 쓰고있는 가짜뉴스 무언인가 그것은 너무도 엄청난 무서운 현실앞에 얼흔이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실을 눈감아 조선인

민군과 친지격차로 납작하게 된 저들의 가련한 체모를 유지해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제 귀를 막는다고 해서 방울소리를 남도 못 듣는 것이 아니다.

남조선호전세력이 아무 리 공화국의 핵무기소형화에 대해 부인하려고 해도 조선의 핵위력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가 다 알고있으며 그 위력은 시간이 갈수록 질량적으로 더 강화되게 될 것이다.

《엄이도령》격으로 어리석게 놀아대고있는 남조선호전세력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며 공화국의 핵억제력이 얼마나 그들에게 무서운 악몽을 불러오고있는가를 더욱 실감하게 된다.

리어금